

사회주의 중국 출판문화정책 당정(党政) '문건'과 그 역사적 맥락 일고*

신동순**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마오 시대의 출판사업과 정치성 강화
 - 1) 출판사업의 건립(1949-1956): 출판의 통일과 집중, 지도의 일원화
 - 2) 출판사업의 침체(1957-1976): 정치 도구화, 출판의 획일화
3. 포스트 마오 시대의 출판산업의 등장과 시장성 강화
 - 1) 출판사업의 회복과 개혁(1978-199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 2) 출판산업의 등장과 발전(1992-2001): 시장경제 산업체제로의 진입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第一屆全體會議)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을 선포하였다. 강령 제1장 제5조는 중국 인민에게 사상, 언론, 집회, 결사, 통신, 신체(人身), 거주, 이주, 종교 신앙 및 시위의 자유권이 있고, 제5장 제49조에는 진실 보도를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조항으로 넣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권이나 언론 자유에 대한 현실은 다르다. 중국 현대사와 그

*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A-A00106)”. 본 논문은 2013년 한국중국학회 제33차 중국학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부족한 논문을 토론해 주시고 보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shinmar@hanmail.net

역정을 함께 했던 첸리췌(錢理群)교수는 “겉보기에는 ‘신중국’에 국민당 시대의 구 중국과 같은 출판 검열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출판법’이란 것이 없었다. 검열관은 삭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모두가 참 자유로워 보인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언론에는 자유가 있고, 출판에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 言論有自由, 出版有紀律’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규율’이란 글을 출판하면 출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¹⁾ 그러다보니 작가는 그 규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으로 인해 출판사가 처벌받고 불이익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작가들은 스스로 자기 삭제와 자기 검열을 선행하게 된다. 그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을 것”²⁾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국 당정(党政) 강령에서 말하는 자유와 실제 언론·출판·결사의 실천 공간에서 느끼는 자유가 부동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1949년 당정 강령은 중국의 모든 언론출판 관리 규정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고 이후 많은 관리 규제 문건들이 만들어져 나왔다. 건국이후, 정부는 국민당 통치하에서의 출판기관을 인수, 정비, 관리하였고, 법률성 혹은 비법률성 문건들을 시의적절하게 공표하여 당정 관리 감독의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런 관리 감독 하에서 1949년 이후 출판물들은 당정 이데올로기를 선전 교육하는 강력한 정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교육 수단이라는 역할과 더불어 상품으로서의 시장성과 산업성을 지향하며, 시장과 정치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본 논문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출판에 관한 당정문건과 그것의 역사적 맥락을 정리해 보고, 그 의미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당대 중국의 출판정책과 관련한 당정문건을 크게 두 시기, 마오(毛) 시대와 포스트 마오 시대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 포스트 마오시기 중에서도 본 논문은 2001년까지만을 다루고자 한다. 2000년 제15차5중전회에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공식 제기되

1) 첸리췌, 김영문 옮김, 《내 정신의 자서전-나에게 묻는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2012년, 9~10쪽. 관련된 출판 법규나 조례, 규정은 있어도 출판법은 없다.

2) 첸리췌, 연광석 옮김, 《모택동시대와 포스트 모택동시대 1949-2009》상, 한울출판사, 2012년, 31쪽. 앞으로의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은 군사통제권과 당 수권제, 그리고 이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라고 설명한다.

었고,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문화시장, 체제, 산업에 관한 문건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던 과도기로, 그 수량과 내용의 분량에 있어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마오 시대의 출판사업과 당정문건: 정치성의 강화

1) 출판사업의 건립(1949-1956): 출판의 통일과 집중, 지도의 일원화

1948년 8월 중공중앙은 전국성, 통일성, 집중성을 갖춘 출판기구를 설립하면서, 구 출판기관 몰수 처리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1월 18일과 12월 29일 각각 <신해방 도시의 중외 간행물 통신사 처리방법에 관한 지시關於新解放城市中中外報刊通訊社處理辦法的指示>³⁾와 <신해방구 출판사업에 대한 정책의 임시규정對新區出版事業的政策暫行規定>⁴⁾을 발표하여 “인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보장하되, 반인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박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규정하는 반인민적 성격의 출판과 언론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겠다는 것이다. 문건은 민영과 비관료자본으로 운영하는 서점에 대해서 영업 허기는 하지만,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는 서적은 전면 발행 금지하겠다는 통지를 한다. 또 출판 기관들은 인민정부에 등록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출판할 수 있고, 외국 통신사와 신문 잡지는 반드시 중앙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체의 개별적인 활동은 금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근거로 중공중앙은 국민당 통치하에 있었던 국민당 성향의 민영 출판기관을 점진적으로 인수·정비하고, 국민당이 만든 모든 출판기관(출판사, 신문, 잡지, 통신사 등)을 일괄적으로 몰수·정리한다. 그리고 다음해 2월에는 국민당 통치지역에서 만들어진 성휘(生活)서점, 두수(讀書)출

3) 上海申報、新聞報、天津及北平益世報 등.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4-12/06/content_2300874.htm 참고

4) 예를 들면 正中書局、中國文化服務社、獨立出版社、撥提書店、青年書店、兵學書店 등을 말한다. <中央對新區出版事業的政策暫行規定> 1948년 12월 29일.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4-12/06/content_2300843.htm 참고.

판사, 신즈(新知)서점을 성휘·두수·신즈싼렌(生活·讀書·新知三聯)서점⁵⁾으로 합병하였다. 그리고 “성휘·두수·신즈 싰렌서점” 임시관리위원회 주석이었던 황뤄펑(黃洛峰)과 주즈딩(祝志澄), 핑제싼(平杰三), 왕쯔예(王子野), 화잉셴(華應申), 스위차이(史育才), 어우젠신(歐建新), 쉬보신(徐伯昕) 등 8명으로 이루어진 출판위원회⁶⁾를 조직하였다.⁷⁾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組織法〉 제18조에 의거해 국가 기구인 중앙인민정부 출판총서(出版總署)와 언론총서(新聞總署)가 설립되었다. 중공중앙선전부 출판위원회가 바로 이 출판총서의 전신이다.⁸⁾

- 5) 1948년 6월 6일 저우언라이 총리는 성휘서점, 두수출판사, 신즈서점 책임자 徐伯昕、黃洛峰、沈靜菴에게 세 곳의 직원들과 편집인들, 자금을 연합해 해방구로 들어 올 것을 지시전달하고 홍콩주재 중국공산당 문위(中共香港文委) 주도로 세 서점을 합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0월 18일 대표자 회의에서 임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편집인원들이 해방구에 도착하고 홍콩에는 生活·讀書·新知三聯서점 직매점만 남아 발행업무를 담당한다. 그 간판은 “生活書店·讀書出版社·新知書店三聯書店”이었다. 方厚樞, 〈历史回望:新中国出版事业的开端〉, 《中国编辑研究》2004年01期, 473쪽.
- 6) 출판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中宣部出版委员会” 혹은 “中央宣传部出版委员会”, “华北出版委员会”, “中国共产党中央宣传部出版委员会”가 있다. 그 중에 화베이출판위원회는 성립할 당시인 2월 중앙선전부가 베이핑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중앙은 화베이 선전부 부장이었던 저우양(周扬)에게 본 조직 설립을 위탁하게 된다. 3월 중앙선전부가 들어오게 되고 저우양은 선전부 부부장으로 임명되고 출판위원회는 중앙선전부에 귀속된다. 위 출판위원회 명칭을 약칭하여 “出版委员会”라 하였다. 출판위원회 조직은 크게 출판처(出版处), 창무처(厂务处), 비서실(秘书室), 회계실(会计室)로 구성되어졌고 이런 “两处两室” 아래 조직을 세분화하였다. 黃洛峰, 〈出版委员会工作报告〉,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37쪽 참고.
- 7) 黃洛峰, 〈出版委员会工作报告〉,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37-38쪽 참고.
- 8)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인민정부조직법에 의거 출판총서(서장胡愈之)와 언론총서(서장胡乔木)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949년 12월 5일 출판위원회가 해체되었다. 1954년 국무원이 만들어지고, 9월 국무원의 조직법에 의거해 정부원의 조직기구가 되면서 출판총서는 철폐되었다. 1985년 6월 28일 문화부 국무원이 상신하여 문화부 내부에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설립을 건의하고 7월 25일 국무원의 비준으로 문화부 내의 출판국을 국가출판국으로 전환한다. 1987년 1월 국무원은 국가출판국을 없애고 국무원 직속 언론출판서(新闻出版署)*를 설립하고 국가 판권국은 그대로 남겨 둔다. 2001년 언론출판서를 언론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로 승격하였다. 현 언론출판총서는 중국의 언론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법률과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언론출판사업의 정책방향을 연구하며, 언론출판과 저작권을 관리하는 규장과 관리 조치를 정하고 정책 실행과 감독 검열을 진행하는 기구로, 신문잡지출판에 관한 관리 감독은 언론보간사(新闻出版刊司)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였다. 《互动百科》 참고.

1949년 10월 3일, 중앙인민정부 수립 후 3일째에 “전국신화서점출판업무회의 全國新華書店出版工作會議”⁹⁾가 1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출판회의였으며 출판위원회, 신헌서점, 해방사, 교과서편찬 심사위원회, 신화인쇄공장, 텐진지식서점 등 74명의 출판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출판 업무를 잘 완수하자認真做好出版工作”라는 격려의 글을 써서 회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회의는 주더(朱德)의 개막식 담화, 후위즈(胡愈之, 당시 출판총서서장)와 루딩이(陸定一, 당시 중공중앙선전부부장)가 각각 <전국 출판사업 개황全國出版事業概況>과 국제문제를 발표한다. 그리고 18일 저녁에는 마오주석이 이들을 친히 중난하이(中南海)로 불러 접견하였다.¹⁰⁾ 주석이 직접 접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신중국 출판사업의 핵심 방침이 만들어졌다. 곧장 <신화서점의 전국적 통일에 관한 결정關於統一全國新華書店的決定>과 <전국 신화서점 각 부서 사무 통일에 관한 결정關於統一全國新華書店各部門業務的決定>이 통과되었다. 문건에서 출판사업의 통일과 집중, 전문화와 기업화 추진, 국가의 출판사업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총 관리처에 출판, 창무(廠務), 발행 부서를 만들어, 각 영역의 전문화를 꾀하였고, 통합적 업무를 보았던 각 지점들에게 발행 업무만을 취급토록 했다. 또 출판과 발행, 인쇄 부서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주더는 <전국신화서점 출판업무회의 개막식에서의 담화在全國新華書店出版工作會議開幕上的講話>를 통해 공동강령에서 제기한 신중국의 문화건설과 인민을 위한 통속 서적 간행물 출판을 재차 강조하였다.¹¹⁾ 신화서점¹²⁾은

* 중국에서 “新闻”은 언론을 지칭한다.

<http://www.baik.com/wiki/%E6%96%B0%E9%97%BB%E5%87%BA%E7%89%88%E6%80%BB%E7%BD%B2>

9)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54쪽 참고.

10)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54쪽 참고.

11) 朱德, <在全国新华书店出版工作会议开幕上的讲话>,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52-54쪽 참고.

12) 1950년 9월까지 9개의 총분점과 47개의 분점, 889개의 지점, 8,000여명의 직원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출판조직이 되었다. 方厚枢, <新中国出版事业四十年(上)>, 《出版工作》1989年10期, 3쪽.

이런 정책 지시를 받아 정책, 업무, 조직, 제도에 있어 전국적 통일과 집중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¹³⁾ 사회주의 중국의 출판을 전면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인민(人民)출판사, 인민교육(人民教育)출판사, 중국청년(中國青年)출판사 등이 만들어졌다.¹⁴⁾

1950년 9월, 출판총서 주최 “제1차 전국출판회의”¹⁵⁾를 열어 5개항 결의안¹⁶⁾이 통과되었다. 회의는 “통일적인 실천과 협업統籌兼顧, 分工合作”을 원칙으로 국영과 민영 출판업의 관계를 조정¹⁷⁾하고 분업과 전문화를 추진하여 비조직적이고 무계획적인 출판 현상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출판총서 서장 후위즈(胡愈之)의 〈인민출판사업과 그 발전 방향을 논함論人民出版事業及其發展方向〉이라는 주제 발언에 이어, 〈출판 업무 개선과 발전에 관한 의견關於改進和發展出版工作的意見〉과 〈출판 전문화 실행에 관한 의견關於實行出版專業化的意見〉이 발표되었고, 원고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제정도 제기되었다.¹⁸⁾ 정무원은 28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명의로 〈전국출판사업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지시關於改進和發展全國出版事業的指示〉를 발표하고, 서적과 간행물의 출판·발행·인쇄가 “국가건설 사업 및 인민문화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업무”임을 강조하였다. 출판총서는 〈국영 서적 간행물 출판·인쇄·발행 기업의 분업 전문화와 국

13) 〈大陸出版業概況年度大事記〉 1949년 10월-1949년 12월,

http://www.chuban.cc/gj/syzz/dlcbgk/zywz/200703/t20070315_21787.html 참고.

14) 인민출판사는 1950년 12월 1일 성립되었으며, 1951에서 1986년까지 싼랜서점을 합병하여 운영되었다. 인민교육출판사 역시 1950년 12월 1일 성립되어 국가 교육 교재 출판을 담당하였고, 중국청년출판사는 1950년 1월 성립되었다.

15) 2950년 9월 15일에서 9월 25일 열린 첫 출판회의로 출판사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16) 5개항 결의안은 〈關於發展人民出版事業的基本方針的決議〉, 〈關於改進和發展出版工作的決議〉, 〈關於改進和發展書刊發行工作的決議〉, 〈關於改進和發展期刊工作的決議〉, 〈關於改進和發展書刊印刷業的決議〉로, 1950년 9월 25일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7) 건국초기 새로운 도서를 출판한 출판기구는 185개로 그 중 국영(公營)은 15개, 국영과민영의 합작경영(公私合營)은 6개, 민영(私營)은 163개였다고 한다. 근 일 년 동안 출판된 도서가 5,000여종이고, 그 중에 민영 출판은 2,872종으로 전체 60여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민영의 국영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王建輝, 〈新中國出版事業的良好開端〉, 《出版科學》 1998年第3期, 37쪽.

18) 〈關於改進和發展出版工作的意見〉, 〈關於實行出版專業化的意見〉, 宋原放主編, 《中國出版史料現代部分》 第三卷上冊, 山東教育出版社, 2000년, 96-107쪽 참고.

영·민영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關於國營書刊出版印刷發行企業分工專業化與調整公私關係的決定)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출판계의 비조직적이고 무계획적인 현상을 일소하기 위해 출판과 인쇄, 발행에 있어서 분업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국가 기구인 인민출판사와 신화인쇄공장, 신화서점이 정비되었으며, 출판총서 직속으로 두면서 각각 출판, 인쇄, 발행을 담당하게 하였다.¹⁹⁾ 또 국영과 민영 출판업의 관계 조정, 나아가 흡수 통합을 위해서 민영출판사에 연합 경영 방식을 제시하였고, 민영 출판물에 대해 평론가들의 적극적인 비판을 권장하고 그 글을 게재함으로써 민영출판물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였다.

〈민영 출판업 정비와 개조에 관한 보고關於整頓和改造私營出版業的報告〉²⁰⁾에 따르면 1951년 중앙선전부의 지시 하에 〈서적 간행물 출판업, 인쇄업, 발행업 관리 임시조례管理書刊出版業印刷業發行業暫行條例〉가 만들어져, 1952년부터 민영출판기관의 등록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영 “투기”로 분류된 출판기관들이(1953년 당시 76개, 1954년 54개 출판사) 점진적으로 정리되어 갔다. 언론총서와 출판총서 연합으로 발표한 〈전국 신문잡지 간행물의 출판물 평론 업무 수립에 관한 지시關於全國報紙期刊均應建立書報評論工作的指示〉는 각 신문 잡지 간행물에게 전문적인 평론 지면을 확보하고 사내 인사나 사외 평론가 및 전문가를 지정하여 도서나 문장의 “오류錯誤”를 비판하고, 대상 서적을 판금 처리 하라고 지시하였다. 출판기관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 시기 출판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 서적의 대량 출판이다. 대중의 혁명 이론 고취를 명목으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의 저작들과 정책성 도서들이 대량으로 인쇄 출판되었는데, 1950년 한해 1,000여 만 권에 달했다. 또 대량의 정치 이론과 시사정책 통속물들도 출판되었다. 예를 들면 토지개혁,

19) 出版总署, 〈出版总署关于国营书刊出版印刷发行企业分工专业化与调整公私关系的决定〉,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110-114쪽 참고.

20) 中央宣传部批转出版总署党组, 「关于整顿和改造私营出版业的报告」,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130-146쪽 참고.

반혁명 진압, 향미원조, 혼인법을 선전하는 것들이었다. 마오쩌둥 저작은 1949년 10월부터 1956년 말까지 48종 6200만권이 출판 발행되었고, '5.4' 이래 문학작품들도 대량 출판되었다. 1956년 한 해에만 1,070여종의 시가와 소설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루쉰의 저작들은 1956년까지 25종에 달했고, 그해 인민문학출판사는 『루쉰전집魯迅全集』을 출판하였다. 마오둔(茅盾)의 『자야子夜』와 바진(巴金)의 『가家』 등의 작품들도 10여 차례 이상 재판되었으며, '5.4' 이래 각종 유파의 작가 작품 선집들도 50여종이나 되었고, 각종 통속서적들도 22,000여종에 달했다.²¹⁾ 1955년 11월 발표한 〈통속 도서 출판발행업무 강화에 관한 지시요청 보고關於加強通俗圖書出版發行工作的請示報告〉에 따르면 1950년에서 1954년까지 출판된 통속서적은 13,200여종에 달하고 초판과 재판을 합해 46,900여 만 권이었다.²²⁾

이처럼 1949년 이후 1956년까지 중국의 출판사업은 당정의 관리아래 통일적으로 이루어졌고 전국적 규모의 국가 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이런 조직적인 관리로 사회주의 중국 출판사업은 일괄 정비되는 것 같았고, 성공적으로 보였다. 국영출판사의 설립과 민영출판사의 사회주의 개조도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56년 말, 전국적으로 101개의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중 국영은 82개, 국영·민영 연합출판사가 19개, 이 중에서 중앙급 출판사가 54개, 성, 자치구, 직할시 단위의 출판사 47개로, 중앙과 성(省)단위 간에 배분이 균형적으로 보였다.

출판계 출판과 조직 재건의 이런 다양성과 균형은 1956년 5월 26일 중앙선전부 부장 루딩이(陸定一)가 중공중앙의 위탁을 받아 발표한 〈백화제방, 백화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의 문건과 이후 전개된 운동과도 연관된다. 쌍백방침이 선포되면서 언론·출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1956년 7월 1일 《인민일보》 개정판에 사설 〈독자에게致讀者〉를 발표하여, 소련의 선전 모델을 그대로 수용해 온 사회주의 중국의 언론사업의 교조주의와 당팔고를 비판하였다. 사설은 《인민일보》가 당의 신문이자, 인민의 신문으로 지금까지 당과 인

21) 方厚樞, 《新中国出版事业四十年(上)》, 《出版工作》1989년10期, 15-20쪽 참고.

22) 〈文化部党组关于加强通俗图书出版发行工作的请示报告〉1955년 1월 24일,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159쪽 참고.

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으니”, 독자들의 많은 비판과 도움을 바란다”고 쓰고 있다. 언론에서의 개혁은 보도면을 확대²³⁾하고 자유토론을 전개하며, 문풍(文風)을 개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또 1956년 5월 28일 류사오치(劉少奇)는 신화사와 중앙광과사업국 책임자에 대한 연설을 통해, 또 후차무(胡喬木)는 6월 19일 신화사 책임자와의 대담을 통해 언론계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신을 제거하고 교조주의와 당팔고를 반대하며, 신문은 객관, 진실, 공정,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기자들은 사실과 진리를 추구하여 신화사를 “세계적인 통신사”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선전정책 뿐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검토도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당 기관신문으로 당 정책의 선전선동에 몰두했던 신문의 성격을 정책 선전에서 나아가 당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를 당이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 공정한 보도를 강조하며, 사회주의 중국 초기 강화된 기관 신문의 당성을 완화하면서 당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견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 출판계는 바로 반우파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게 된다.

2) 출판사업의 침체(1957-1976): 정치 도구화, 출판의 획일화

1957년 2월 27일 마오쩌둥이 최고국무회의 제11차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인민내부 모순의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자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가 6월 19일 《인민일보》에 발표되었다.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정돈하고 사회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처리하지는 내용이였다. 또 마오쩌둥은 3월 중국공산당 전국선전공작회의²⁴⁾에서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업무

23) 195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4면을 8면으로 확대하였고, 1면에 중요기사, 2, 3면에 국내 경제, 4면에 국내 정치, 5, 6면에 국제소식, 7면에 학술문화, 8면에 부간(副刊)과 광고를 실었다.

24) 중국공산당 전국선전공작회의는 1957년 3월 6일에서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당외 민주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중앙과 성(시)급 당 선전 문교부서 책임자들 3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밖에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출판 등 영역의 당외 인사들 100여명도 함께 하

회의에서의 연설在中國共產黨全國宣傳工作會議上的講話²⁵⁾을 하고, 중점적으로 지식인의 현황과 그들의 개조문제, 또 공·농대중과의 결합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과 정풍(整風)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다. 그는 “농이주고放”와 “거둔다收”는 방침에 있어서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전국 인민들의 당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인민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들은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장해 갔다. 3월 10일 발표한 〈언론·출판계 대표와의 담화同新聞出版界代表的談話²⁶⁾〉에서는 교조주의와 우경기회주의를 비판하며 지식인의 마르크스주의 학습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했다. 또 상하이 《문화보文匯報》에서 전개했던 영화문제에 대한 토론에 영화국의 적극적 개입을 지시하였고, 언론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신문 평론과 투고 문제, 신화사 보도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통신사의 계급성문제, 학술토론의 자유 등등의 문제에 신문들의 적극적인 여론 추동을 요구하였다. 신문의 기업적 경영이나 경제성에 관한 것은 사라지고 그것을 대신해 이데올로기와 부르주아계급 신문의 자유사상 비판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강경한 어조로 계급투쟁 전개를 암시하였다. 그리고는 언론·출판의 계급성과 투쟁성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였다.

마오쩌둥은 1957년 5월 15일 〈상황에 변화가 일고 있다事情正在起變化〉라는 문장을 발표하였다. “우리 당에는 지식인 당원(청년당원들은 더 많다)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수정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신문의 당성과 계급성을 부인한다. 또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부르주아계급의 언론사업 간에 존재하는 원칙을 혼동하고 있다. 사회주의 집단경제를 반영

었다. 회의에서 〈关于正确处理人民内部矛盾的问题〉의 강화를 관철하기 위해, 특히 지식인의 문제와 정풍문제, 공산당의 사상의식문제 및 쌍백방침에 관해 토론하였다. 그리고는 3월 12일 마오쩌둥의 〈在中国共产党全国宣传工作会议上的讲话〉가 발표되었다. 〈全国宣传工作会议(1957年3月6-13日)〉, <http://dangshi.people.com.cn/GB/151935/176588/176596/10556134.html> 참고.

25) 〈在中国共产党全国宣传工作会议上的讲话〉 1957년 3월 12일,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5-01/05/content_2418491.htm 참고.

26) 毛泽东, 〈同新闻出版界代表的谈话〉, 1957년 3월 10일,

<http://www.baike.com/wiki/%E3%80%8A%E5%90%8C%E6%96%B0%E9%97%BB%E5%87%BA%E7%89%88%E7%95%8C%E4%BB%A3%E8%A1%A8%E7%9A%84%E8%B0%88%E8%AF%9D%E3%80%8B>

한 언론사업과 자본주의 무정부집단의 경쟁적 언론 사업을 혼동한다. 그들은 부르주아계급의 자유주의를 좋아하면서 당의 지도를 반대한다. 그들은 민주를 찬동하면서 집중을 반대한다. 그들은 계획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문화·교육 사업(언론사업을 포함해)을 반대한다. 과분한 집중 지도와 계획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우익 지식인들과 서로 연합하는데, 마치 친형제와 같다는 것이다.”²⁷⁾ 우려를 표하면서 그는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와 진격을 암시하였다. 1957년 6월 8일 중공중앙의 〈힘을 모아 우파분자의 진공에 반격하라는 지시 關於組織力量準備反擊右派分子的進攻的指示〉가 내려지고, 같은 날 《인민일보》는 〈이는 무엇 때문인가這是爲什麼?〉²⁸⁾를 필두로 9,10,11,12,14일 연속 우파를 반격하는 사설들을 게재하였다. 14일에는 우파에 동조하였던 《문화보》와 《광명일보》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반우파 운동을 시작으로 “신문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투쟁의 대변자”가 되어갔다.²⁹⁾ 1966년 중국 공산당 8차10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무릇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여론을 먼저 형성해야 하며 이데올로기 공작을 선행해야 한다”³⁰⁾며 혁명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언론은 문화대혁명시기 투쟁의 선봉자적인 역할을 주도하였다.

1962년 계급투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기존에 출판된 문예작품에 대한 극좌적 평가와 비판은 더욱 격렬해졌다. 작품들을 반당·반사회주의 독초로 규정하고, 1964년과 1965년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명목으로 각 출판사에 대해 도서 검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금서가 늘어갔다. 그리고 금서에 연루된 작가와 출판인은

27) “我党有大批的知识分子新党员(青年团员就更多), 其中有一部分确实具有相当严重的修正主义思想。他们否认报纸的党性和阶级性, 他们混同无产阶级新闻事业与资产阶级新闻事业的原则区别, 他们混同反映社会主义国家集体经济的新闻事业与反映资本主义国家无政府状态和集团竞争的经济的新闻事业。他们欣赏资产阶级自由主义, 反对党的领导。他们赞成民主, 反对集中。他们反对为了实现计划经济所必需的对于文化教育事业(包括新闻事业在内的)必要的但不是过分集中的领导、计划和控制。他们跟社会上的右翼知识分子互相呼应, 联成一起, 亲如弟兄。” <http://www.douban.com/group/topic/2083682/> 참고.

28) 〈这是为什么?〉, 《인민일보》1957년6월8일 평론.
http://blog.sina.com.cn/s/blog_9ed4d66f01014axv.html

29) 이봉우, 《시장경제 도입 이후 중국 신문의 변화와 특성》, 서울, 한국학술정부(주), 2004, 45-46쪽 참고.

30) 丁柏铨, 《中国当代理论新闻学》,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2002, 55쪽 재인용.

대대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출판계는 크게 위축되었다. 1965년 당시 전국의 출판 도서는 20,143종으로 1956년보다 30% 이상 감소되었고, 출판물 대부분은 정치서적들 뿐이었다.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 서적이 특히 대량 출판되었다. 1963년에서 1964년 사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저작 간부 선독본이 30여 종이나 나왔다. 하지만 중화서국이 출판하려던 “이십사사二十四史”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출판 중지되었다.³¹⁾ 또한 1961년 후위즈(胡愈之)가 주편했던 《지식총서》, 인민출판사와 인민문학출판사, 중화서국, 상무인서관, 세계지식출판사, 과학보급출판사 6개 출판사가 연합으로 동시 출판했던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지리, 문학, 예술 관련 저작 82종도 문혁 시작과 함께 출판과 판매가 중지되었다.³²⁾ 당시 출판국 국장이었던 천위안(陳原)은 “1960년에서 1962년 어려운 시기에衣食마져 정상적이지 못한데, 무슨 백과전서를 출판하는가, 1962년부터는 ‘계급투쟁이 매일’ 일어났고, 국내에서는 ‘사청(四清)’운동, 문화예술계 정풍, 국제적으로는 반수정주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1966년 전대미문의 문화대혁명이 모든 것을 집어 삼켰다”³³⁾고 한탄하였다. 이는 당시 후위즈의 백과전서 출판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들었던 그의 느낌이었고, 당시 출판계 현황이었다.

문혁시기의 출판은 모두 린바오(林彪)와 장칭(江青)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들은 “신중국 이후 출판사업의 모든 성과를 전면 부정하였다. 17년간의 출판 공작이 반당반사회주의 후선전제정치라고 하였으며, 해방구 출판 공작의 혁명전통을 전면 부정하면서 또 국민당통치구의 진보적 출판 공작도 완전히 부정하였다.....1966년 8월 중공중앙은 신속하게 마오쩌둥 저작을 대량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저작의 출판 인쇄 발행을 다른 모든 임무보다 우선시 할 것을 강조했다.”³⁴⁾ 이로 인해 1966년에서 1970년 사이 마오쩌둥 저작과 어록, 동상이 104억 여권

31) 方厚枢, 《新中国出版事业四十年(上)》, 《出版工作》1989年10期, 25-26쪽 참고.

32) 陈原, 《胡愈之和〈知识丛书〉》,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185-200쪽 참고.

33) 陈原, 《记胡愈之谈百科全书》,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172-173쪽 참고.

34) 《“文化大革命”对出版事业的摧残和破坏》,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201쪽 참고.

(장)이나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출판계는 일원화되었고 그 형세도 크게 위축되었다. 문혁 전 87개 출판사에 출판인들이 10,149명이었던 것이 1970년 말에는 전국에 출판사 53개, 출판인 4,694명으로 감소되었다. 서점에서도 마오쩌둥 저작과 혁명양판희(革命樣板戲), “양보일간兩報一刊”(《人民日報》, 《解放軍報》, 《紅旗》) 외에 다른 도서나 신문 잡지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³⁵⁾

1971년 린바오 사건 이후 출판계는 더 심하게 장칭과 4인방의 간섭과 통제를 받았다. 자신들만의 언론출판 시스템이 필요했던 이들은 “출판대오를 재건하자 重建出版隊伍”라는 이슈를 내걸고, “탈권을 하려면 이전의 사람은 버려라要奪權, 不要原來的人”라는 전략으로 기존 출판인들을 배척하고 젊은 청년출판인들을 양성 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1976년까지 전국적으로 7,500여종의 도서(그중 80%는 정치서적)를 출판하였다. 그 중 80%가 정치서적들이었다.³⁶⁾ 그러나 한편 또 새로운 바람도 불고 있었다. 저우언라이 총리의 특별한 관심 아래, 1971년 2월 전국출판공작좌담회(全國出版工作座談會)가 열렸다. 그리고, 1973년 국무원의 비준으로 국가출판사업관리국이 정식 설립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출판공작좌담회에 관한 보고關於出版工作座談會的報告>를 마오쩌둥 주석에게 보내고 ‘동의’라는 지시비준을 받았다. 비준 이후 이론, 문학예술, 과학기술, 학술연구, 문교위생, 체육에 관한 간행물들 창간을 계획하고, 공·농·병과 청소년들을 위한 간행물들을 창간하였다. 그리고 사회과학 간행물은 중앙조직선전부의 비준을, 문학예술 부분은 국무원 문화조(文化組) 비준을 받는다는 중앙문건을 각각 하달하였다.³⁷⁾ 이후 정간되었던 잡지 간행물들의 복간과 새로운 간행물의 출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 20여종이었던 간행물이 1972년에는 194종으로, 1976년 말에는 542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은 상당히 단조롭고

35) 도서는 20,143종에서 1966년 11,055종으로, 1967년에는 2,925종으로 감소하였고, 잡지 간행물 역시 1965년 790종에서 1966년 191종, 1969년 『홍치』를 포함한 20종만 남게 되었다. 잡지간행물 역사상 가장 적은 수량이다. <“文化大革命”对出版事业的摧残和破坏>,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202-203쪽 참고.

36) <“文化大革命”对出版事业的摧残和破坏>,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205쪽 참고.

37) 方厚枢, <“文革”十年的期刊>,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245-246쪽 참고.

부실하였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여전히 혁명대비판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사인방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³⁸⁾

3. 포스트 마오 시대의 출판산업의 등장과 시장성 강화

1) 출판사업의 회복과 개혁(1978-199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1976년 10월 장칭과 4인방이 체포되면서 출판문화계는 두 번째 해방감³⁹⁾을 갖게 된다. 1977년 12월 국가출판국은 베이징에서 전국출판업무좌담회를 개최하고, 각 출판기관들은 좌담회를 근거로 3개년, 5개년 출판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출판국은 문혁으로 파괴된 각 출판 조직의 재건과 '5.4' 이래 그리고 신중국 성립 이후 출판되었던 철학, 문학, 역사, 과학 등의 저서와 작품들의 재출판에 주력하였으며 문혁시기 출판사업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였다. 그 중 왕광(王匡)⁴⁰⁾은 문혁시기 출판계에 대한 “兩個估計”⁴¹⁾가 억압의 논리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사인방(四人幫)의 저우언라이 총리에 대한 음모와 조작이라고 규정한다.⁴²⁾ 그리고 문혁 중 폐지되었던 원고료제도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38) 《“文化大革命”对出版事业的摧残和破坏》，宋原放主编，《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山东教育出版社，2000年，208쪽 참고.

39) 1차는 문혁 중 1971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 하에서 열린 전국출판공작좌담회와 이후의 출판활동을 말한다. 저우총리는 문혁 중 사인방의 출판물에 대한 봉인을 비판하고 독서물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판물에 대한 봉인해제와 새로운 도서 출판을 강력하게 진행하였다. 《진화론》과 《자치통감》，《홍루몽》 등 “四旧”라 비판받고 독초로 규정되었던 서적들에 대해 출판을 지시하였다.

40) 1978년 7월 홍콩 신화사 사장으로 부임해 간다. 1년 동안 국가출판국 당서기이자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출판계 문혁 과오를 시정하는데 노력한 인물이다.

41) “两个估计”는 1971년 중앙 43호 문건 중에 나왔던 건국 이래 출판계가 “반혁명흑선 전제정치反革命黑线专政”，“부르주아계급 지식분자가 지휘권을 잡는다资产阶级知识分子占统治地位”는 내용으로 마오쩌둥이 지시 비준한 것이며, 저우언라이 총리가 1971년 출판공작좌담회에서 중앙에 보고했던 내용이다. 1979년 이 문건 철회를 요청한다.

42) 宋本文，《清理和批判“四人帮”炮制的“两个估计”》，宋原放主编，《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山东教育出版社，2000年，273-275쪽 참고.

1977년 9월 시행되었다.

1978년 12월 당의 11차3중전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제기하였다. “4개 현대화” 방침에 따라 출판계도 과학기술 도서 출판과 5개년 출판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도서 출판을 진행하였다.⁴³⁾ 7월 18일 국가출판국은 〈출판업무 강화와 개선에 관한 보고關於加強和改進出版工作的報告〉에서 “출판사업을 강화하자. 도서 종류와 양이 적다. 출판 주기도 길다. 또 인쇄기술도 낙후되었다. 이런 상황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⁴⁴⁾며 다양한 도서들을 대량 출판하겠다는 보고를 한다. 또 출판업무 중 정치의 이탈은 반대하지만 또 임의로 정치원칙을 내세워 작품 속의 사상성이나 학술성을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출판물이나 출판업무 과정에서의 정치성이 그 실천의 진위여부를 막론하고 일정 정도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도서 원고료에 관한 임시규정 關於書籍稿酬的暫行規定〉, 〈편집간부 업무 직명 임시규정編輯干部業務職稱暫行規定〉, 〈출판사와 인쇄소의 인쇄계약의 원칙에 관한 의견關於出版社與印刷廠簽定印刷合同的原則意見〉, 〈출판사와 신화서점 업무관계에 관한 몇 가지 원칙 關於出版社與新華書店業務關係的若干原則規定〉 등을 제정하여 출판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도모하였다.

1979년 12월 8일 국가 출판국은 창사(長沙)에서 전국출판공작좌담회를 개최하고 신시기 출판공작의 기본 임무와 지방출판 육성 및 활동영역의 확장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 저서와 번역서 종사자의 조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선전하고, 과학문화기술지식의 축적과 전파를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 4개 현대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출판업무조례出版工作條例〉가 만들어졌다. 조례는 출판사가 반드시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실현하며, 서구와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가지고 외야 한다는 원칙을 제기하였다. 국가출판국은 연이어 출판, 인쇄, 발행 각 영역의 전문회의를

43) 〈国家出版局、国家科委关于大力加强科技图书出版工作的报告〉,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300쪽.

44) 国家出版局, 〈关于加强和改进出版工作的报告〉,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307-315쪽 참고.

주최하고 중국출판중사자협회(1979년), 중국인쇄기술협회(1980년), 각 성단위의 동일 협회들을 설립하여 조직을 재건하였다. 1979년에는 출판 관계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세계 각국 중외출판계와 교류하는 문을 열었다.

1982년 10월 당의 12대(十二大)에서는 “계획경제 위주, 시장조절 보조計劃經濟爲主、市場調節爲輔” 관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1984년 10월 12차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을 통과시킨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는 계획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1983년 6월 〈출판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關於加強出版工作的決定〉⁴⁵⁾을 발표하고, 출판물의 상품성과 그것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동시 창출할 것을 강조하면서, 출판물이 상품으로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문건은 신시기 이래 중국 출판계의 중요한 지도 강령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1984년 6월 하얼빈(哈爾濱)에서 개최한 전국지방출판업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출판사들이 단순한 생산형에서 생산경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 1988년 4월 중공중앙선전부와 언론출판서(新聞出版署)는 〈현 출판사 개혁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當前出版社改革的若干意見〉에서 재차 “출판사는 반드시 생산형에서 생산경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판사는 도서 출판자이자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⁴⁶⁾ 출판의 경제성과 시장성을 강조하며 출판사의 자주권을 거론하는 문건들이었다. 출판물의 도서 가격 관리에 관한 〈도서 정가 조절에 관한 통지關於調整圖書定價的通知〉(1984년) 문건도 하달되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 기준가격으로 통괄하였던 것을 이제는 출판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시장성과 자율성에 따라 신문의 종류 역시 다양해졌다.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대표 대회에서는 “중대한 사건은 인민이 알아야 하고, 인민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인민은 “여론에 대한 감독을 전개 한다”는 등 인민의 알 권리와 표현 권리, 그리고 인민의 감독권까지 들

45) 〈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强出版工作的決定〉,

<http://www.chinalawedu.com/news/1200/22598/22618/22868/2006/3/ya8972245333163600222410-0.htm>

46) 黄先蓉、赵礼寿、刘玲武, 〈出版政策体系阶段演进及其效果评估:1949-2010〉, 《重庆社会科学》2011年第7期, 68쪽 참고.

고 나왔다. 그리고는 기존의 단일한 당 기관 신문 체제에서 벗어나 일일신문과 저녁신문, 전문신문, 기업신문 등 다양한 종류의 신문들이 만들어졌다.

1988년 2월에는 문화부와 국가공상국이 <문화시장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文化市場管理工作的通知>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화시장'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관리 범위와 임무, 원칙과 방침 등을 내왔다. 1988년 3월 언론출판서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도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의 유상서비스와 경영활동 전개에 관한 임시 방법關於報社、期刊社、出版社展開有償服務和經營活動的暫行方法>⁴⁷⁾을 발표해 신문, 잡지사 경영의 경제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정기간행물 관리 임시규정期刊管理暫行規定>(1988년 11월 24일), <도서신문잡지 인쇄관리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加強書報刊印刷管理的若干規定>(1989, 12월 25일) 등이 만들어졌다. 임시규정이기는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출판시장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19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진압되고 중공중앙은 7월 곧바로 <선전, 사상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宣傳、思想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언론에 대한 법적 관리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다. 또 1989년 11월 28일 장쩌민(江澤民)의 중공중앙 선전부가 주최한 언론업무토론회(新聞工作研討班)에서 <당의 신문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關於党的新聞工作的几个問題>를 발표해 천안문사태에서 부르주아계급이 자유화 이데올로기로 당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언론의 지위와 역할 문제, 당성문제, 업무방침문제, 언론 자유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언론은 사회주의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언론 업무와 방침, 정책, 원칙에 대한 당의 지도와 기본 방침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언론의 당성문제에 관해서는 인민성이 당성보다 위에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주아 계급이 자유화 이데올로기로 당의 언론 사업과 지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란動亂”과 반혁명 폭동을 평정하려는 당의 정책적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레이초우는 1989년 이런 모습들을 “폭력의 흔적을 닦아내기 위해”,

47) <http://www.lawhelp.cn/law/html/198803/19331spzj.html> 참고.

“중국시민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서양의 출판물과 친서양적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재교육’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잔혹함을 은폐하고 ‘서양제국주의’만이 진정한 적이라는 환영을 쫓는 것”⁴⁸⁾이라고 설명한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출판계는 다시 경제성과 상품성을 중시하며 표면적으로 일정정도 출판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던 것에서 검열과 삭제가 진행되는 엄격한 통제의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 12월 25일 〈신문 잡지 출판관리 임시규정報紙出版管理暫行規定〉이 만들어졌다. 이는 1987년 언론총서(新聞總書) 설립 후 처음 반포된 것으로, 신문의 검열과 등록, 출판, 변경, 경영, 처벌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면적인 출판정책 ‘문건’이었다. 9월 16일 중공 중앙과 국무원은 〈도서, 신문, 잡지와 음반 및 영상물시장의 정비와 범죄활동의 엄격한 단속에 관한 통지關於整頓、清理書報刊和音像市場嚴厲打擊犯罪活動的通知〉를 발표해 우선적으로 출판시장의 자산계급 자유화 경향을 비판하고 출판물의 정치적 과오를 지적하였고, 외설·폭력·봉건미신을 다룬 도서출판간행물과 음반 및 영상물 제품이 범람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돈과 정비, 단속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은 이런 행위를 범죄 활동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리루이환(李瑞環)은 1990년 전국언론판국장회의에서 〈출판업무를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要關心和支出版工作〉⁴⁹⁾라는 연설에서, 출판에 대한 “음란물과 불법출판물 단속(打黃、打非)” 활동을 강력하게 진행해 음란행위, 음란물 매매와 불법출판물 매매를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계급 자유화 경향의 불법출판물은 1989년 중국에서 불었던 자유와 민주주의 바람을 담은 서적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시기 문건들 속에는 유독 “자산계급 자유화”라는 단어들 이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검열과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시기 전국적으로 출판 조직이 확대되고 출판물의 시장성과 상품성이 중시되었다. 출판사의 생산경영형이 강조되면서 출판시장은

48) 레이초우, 장수현 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 지식인》, 이산출판사, 2005년, 143쪽.

49) 李瑞環, 〈要關心和支出版工作〉, 宋原放主編, 《中國出版史料現代部分》第三卷上冊, 山東教育出版社, 2000년, 431-437쪽 참고.

접차 출판 회복기로 진입하였다.⁵⁰⁾ 그리고 1990년 9월 7일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全國人大常委會)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건국 이후 첫 저작권법으로 출판 역사에 있어 유의미한 문건으로 해석된다. 이후 중국은 연이어 베른조약과 세계저작권 조약, 음반조약에도 가입하게 된다.

2) 출판산업의 등장과 발전(1992-2001): 시장경제 산업체제로의 진입

1992년 1월 18일에서 2월 21일 덩샤오핑은 우창(無常),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을 순방하며 강화(講話)를 발표하였다. 이를 남순강화라고 한다. 강화는 90년대 중국 경제개혁과 사회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지침이 되었다. 특히 “모험정신”을 갖고 “대담하게” 개혁개방을 실험하고 실천하자는 의식을 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기본 노선一个中心、兩個基本点”⁵¹⁾을 견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산계급 자유화를 경계하자는 것이다.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출판업은 시장과 산업 속으로 부단히 확장되어 갔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1992년 6월 16일 공동으로 〈3차 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關於加快發展第三產業的決定〉을 발표하였다. “85계획八五計劃”(第八个五年計劃)의 약칭⁵²⁾에 따라 3차 산업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이 요구되었다.

50) 1978년 105개 출판사이던 것이 1990년 501개로 늘어났고, 출판 도서도 79만 여종, 도서 인쇄부수는 총 57억 여권, 신문종류도 1,486종, 잡지는 5,880종으로 회복되었다. 国家新闻出版署课题组, 〈出版事业“八五”计划及十年发展规划〉, 《管理世界》1991年第4期, 123쪽 참고.

51)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내놓은 당의 기본 노선이다. 하나의 중심은 “경제건설”, 두 개의 기본 지점은 “4개항 기본원칙(四项基本原则) 견지”와 “개혁개방 견지”를 말한다. 4개항 기본원칙은 사회주의 견지, 인민민주전제정치 견지, 중국공산당 지도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이다.

52) 1951년부터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재경위원회(약칭 중재위)에서 준비하였고 1952년 중공중앙이 〈关于编制1953年计划及长期计划纲要的指示〉를 발표하여, 1952년 8월 중재위가 “一五计划” 초안을 만들었고 1953년 4월 중앙은 1953년 국민경제계획체요를 비준 하달하였다. 1955년 3월 31일 중공전국대표회의는 중앙위원회가 제기한 첫 번째 5개년 계획 “一五

이는 당의 각 하급 조직에 종속되었던 언론매체를 당정 기관에서 분리하여 3차 산업으로 구분함으로써 언론영역의 '산업'적 개혁을 주도하는 '문건'이 되었다.⁵³⁾ 또 결정적으로 1992년 10월 12일 베이징에서 거행된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약칭 十四大)에서 장쩌민(江澤民)은 14년의 개혁개방 성과를 총결하며 사회주의 신경제체제 확립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중국 경제 개혁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과 완성임을, 계급투쟁이 아닌 경제건설이 당면 임무임을 강조한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加快改革开放和現代化建設步伐, 奪取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⁵⁴⁾ 문건을 선포하였다. 마오쩌둥 시대 계획경제를 사회주의로,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였던 관념을 뒤집어 사회주의에도 상품경제와 시장이 존재하고, 자본주의에 계획경제 개념이 들어 있음을 설교하였다. 계획과 시장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요소가 아니며,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문건에서 구체적으로 경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의 경영체제의 전환, 시장시스템 구축, 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정부 역할의 빠른 전환을 세부 목표로 놓았다. 또한 대외 개방을 통해 국외 자본과 자원, 기술 및 관리 경험을 들여오고, 산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농업, 기초공업과 설비, 3차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교육 발전을 위해 지식인의 역할을 중시하며,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학술자유와 이론의 실천, 창조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철학과 사회과학을 번창시키고, 마르크스주의 견지를 기반으로 한 문화 체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언론, 출판, 방송, 텔레비전과 문학예술 영역의 발전을 강화한다는 의견을 제시했

计划"을 동의하였다. 현재 "十二五计划"까지 진행되고 있다. "十二五计划"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국민경제 발전계획을 말한다.

<http://www.china.com.cn/ch-15/15/k.htm> 참고.

53) 丁柏銓, 《中国当代理论新闻学》,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2002, 56-57쪽 참고.

54) 江澤民, 《加快改革开放和現代化建設步伐, 奪取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 1992년 10월 12일 강화.

다. 언론출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는 출판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하고는, 우선 출판기구와 기업에게 자주권(自主權), 예를 들면 도서기획결정권(選題權), 도서가격결정권(定價權), 직원의 급여 장려금분배권, 자금사용권 등을 주기로 한다. 1993년 11월 11일 열린 제14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은 중공 제14대에서 정한 경제체제 개혁 목표와 원칙을 더욱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였다. 시장 각 영역에 대한 발전계획과 실천 관리 계획을 실고 있으며, 부동산시장과 기술 정보 시장, 인터넷 보급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 출판과 지적 재산권, 기술상품과 정보 상품화와 산업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출판의 산업화에 따른 시장관리에 관한 '문건'들도 생산되었다. 1993년 4월 8일 국가물가국과 언론출판서 공동으로 내놓은 〈도서간행물 가격관리 개혁에 관한 통지關於改革書刊價格管理的通知〉는 출판사가 출판 원가에 근거해 도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출판업이 구체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또 1994년 11월 17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도서간행물과 음반 및 영상물 시장 관리의 강화와 개선에 관한 통지關於加強和改進書報刊影視音像市場管理的通知〉를 발표해 개혁개방 직후 문화시장과 산업의 확대발전 단계에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회주의를 위하고 인민을 위하여兩爲”⁵⁵⁾와 “쌍백쌍백” 방침을 관철하고 주선들을 따르며 다양화를 추구할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후 시장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 1999년 11월 8일 출판물 발행 검열과 발행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은 〈출판물 시장관리 임시규정出版物市場管理暫行規定〉이 발표되었다. 어떠한 출판물이든 반드시 언론출판 행정부서의 승인과 허가를 거쳐야 하고, 발행 및 판매 단위의 자격 요건, 자금과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 중외합자나 합작기업에 대한 출판물 총발행 및 판매 업무를 불허하며, 합자나 합작 회사의 출판물의 판매는 반

55) “为社会主义服务、为人民服务”를 말한다. 문혁시기 “三服务”에서 “为政治服务”가 제외된 “兩为”.

드시 해당 지역 언론출판부서의 심사결정을 받고 언론출판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출판물과 설비의 몰수와 인민폐 10,000원 이하의 벌금, 위법으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만큼 시장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띤다. 또 2001년 2월 언론출판서가 발표한 <정기간행물 “삼심제”와 “삼교일독” 제도의 엄격한 시행으로 출판물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嚴格執行期刊“三審制”和“三校一讀”制度保證出版質量的通知>는 출판물의 편집과정에 관한 관리로, 출판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삼심제” 즉 단계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삼교일독” 즉 단계적으로 세 차례의 교정을 거치는 제도를 엄격히 시행한다는 규정이지만, 그것은 출판물의 정치성향, 학술역량, 사회효과, 당과 국가의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지, 국가와 사회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심사검열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을 말한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출판물 관리에 대해 2001년 8월 14일 언론출판총서의 <출판물에 대한 인터넷의 광고 및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對出版物使用互聯網信息加強管理的通知>가 발표되었다. 출판물의 인터넷 광고 및 정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여론을 조성한다거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은 출판물이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출판물, 또 내용상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출판물들의 노출 및 확대를 지적하며 출판물의 인터넷 광고와 게재에 대한 관리 강화에 관한 것이다. 또 1997년 12월30일 언론출판총서는 처음으로 <전자출판물 관리규정電子出版物管理規定>을 반포하면서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 수입, 발행, 판매, 유통, 시장관리, 처벌에 관한 행정 기준을 세웠다.

2001년 11월 WTO가입 전후, 국무원은 연이어 <인쇄업 관리조례印刷業管理條例>(2001년 7월 26일)와 <음반 및 영상물 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條例>(12월 12일), <출판 관리조례出版管理條例>(12월 25일)를 발표한다. 1994년, 1997년 만들어진 조례들⁵⁶⁾을 폐지하고 WTO 가입과 관련해 출판 시장 관리에 관한 구체

56) <音像制品管理条例>는 1994년 8월 25일, <印刷业管理条例>는 1997년 3월 8일, <出版管理条例>는 1997년 2월 1일 반포되었다가 2001년 모두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

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중 〈인쇄업 관리조례〉는 인쇄 시장의 확대를, 기존 국영으로만 운용하였던 인쇄 업무를 누구든 조례 규정에 맞으면 경영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민간 회사 설립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또한 중외합자와 합작 경영의 인쇄 기업을 허가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출판관리조례〉⁵⁷⁾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출판사업과 출판자유의 권리 보장,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축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며 모두 8장 68조로 1997년 조례의 7장 57조보다 출판물의 수입에 관한 규정을 5장에 새로 추가해 넣으면서 더 세밀화하였다. 1997년 조례보다 행정부서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이들의 위법 혐의 출판물에 대한 검사와 단속·폐쇄·압수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였다. 출판사 설립에 관한 국무원의 심사비준의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여 설립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켰고, 교과서 출판을 공개입찰의 공정한 방식으로 출판단위를 확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넣었다.

한편 외국출판기업과 출판물 판매 유통 전략 및 기술에 대비해 출판기구의 대형화, 해외출판자본의 유입과 관리, 출판물 수출입에 관한 세부적인 문건들도 생산되었다. 2001년 8월 중앙선전부와 광전총국, 언론출판총서는 〈언론·출판·방송·영화·텔레비전 개혁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深化新聞出版廣播影視業改革的若干意見〉을 발표하고 그룹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대형그룹을 만들 것을 추동하였다.⁵⁸⁾ 중공중앙은 2002년 6월 〈언론출판업의 그룹화 건설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新聞出版業集團化建設的若干意見〉을 반포하여 출판기업의 그룹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출판단위의 해외 출판기구와의 연합 관명에 대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對出版單位與境外出版機構聯合冠名管理的通知〉(2002년 6월 11일)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시행

57) 본 조례는 1997년 1월 2일 〈出版管理条例〉를 폐지하며 만들어졌고, 2011년 3월 19일 국무원의 수정을 거치는데 대대적인 개정을 진행한다. 그 중 하나가 “출판사업”에서 “출판산업과 출판사업”으로의 개념 변화이다. 1997년 국무원이 발표한 〈印刷业管理条例〉(“设立印刷企业特种行业许可”를 《特种行业许可证》로 바꿈), 1994년 8월 25일 국무원이 반포한 〈音像制品管理条例〉도 동시 폐지되었다.

58) 2001년 대형 중앙출판사로는 商务印书馆、人民教育出版社、科学出版社、中国地图出版社、人民卫生出版社、清华大学出版社、北京师范大学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中国人民大学出版社、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电子工业出版社가 있다. 《中国出版年鉴》2002年卷.

조례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實施條例(2002년 8월 2일), 〈수입출판물 내용에 대한 심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對進口出版物內容審查工作的通知〉(2002년 8월 5일)는 WTO 가입 후 관련된 출판기관의 합작, 저작권법, 출판물 수출입 기관과 수입 출판물 “내용”의 심사 검열 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위법 시 형법에 근거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 출판물 내용의 적법성을 강력하게 심사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열린 “16대十六大”⁵⁹⁾에 관한 장쩌민의 보고문⁶⁰⁾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특징과 규율에 근거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에 맞는 문화체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선포하였다. 이는 정부와 문화기업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문화 법제를 강화하며,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손에는 “문화 번영”을 다른 한 손에는 “관리 방침”을 가지고, 문화시장체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문화시장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갖추어 사회주의 문화 번영을 위한 우수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4. 나오는 말

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시기 출판문화 정책 ‘문건’의 생산과 그 역사적 맥락을 정리하였다. 시기를 마오 사후 전후인 마오시대와 포스트 마오시대로 나누어 그 기간 어떤 출판문화 정책 ‘문건’들이 만들어져 나왔는지, 어떤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짚어 보았다.

사회주의 중국 이후 출판사업의 건립(1949~1956)시기에 당정은 출판정책 문건 생산을 통해 국민당통치지역의 출판기구와 단위, 출판인들을 일괄 정리 흡수하였고 출판의 통일과 집중성, 전국성과 지도성을 갖추고 당정 지도체제에서 일원화하는 작업과 그 시스템을 단위별로 분업화하고 전문화하였으며, 정치서적의 대량

59) 회의는 2002년 11월 8일에서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60) 〈黨的十六大報告(全文)〉, http://www.ce.cn/ztpd/xwzt/guonei/2003/sljsanzh/szqhbjt/20031009_1763196.shtml 참고.

출판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도 잠시, 1956년 쌍백방침과 1957년 반우파운동을 거치면서 출판사업은 크게 위축되어 갔다. 출판계 역시 정풍운동을 비켜갈 수 없었다. 출판사업은 당정에 의해 획일화되었고, 출판물은 정치도구화 되었으며, 출판인들은 계급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기존에 출판된 작품들은 반당·반사회주의 독초로 규정되었고, 출판사에 대한 검열과 관리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1966년 문화대혁명 시작과 함께 출판계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그나마 미미하게나마 출판하려던 출판물들 예를 들면 지식총서나 이십사사(二十四史) 등의 서적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장되었다. 린바오와 장칭에 의한 출판의 통제와 함께 건국 이후 출판사업은 전면 부정되었고, 마오쩌둥 저작만이 출판되어 나왔다. 1971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관심 아래 전국출판공작좌담회가 열리면서 출판계는 일정 정도의 해방감을 갖게 되지만 서적과 간행물의 내용은 대부분 여전히 혁명에 관한 것이었고 그 내용과 형식은 단조롭고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중국출판계는 출판사업의 회복과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출판사업에 있어서의 체제개혁이 진행되었고, 출판물의 상품성과 시장성이 강조되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출판은 산업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건들이 생산되고 반포되었다. 다양한 출판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출판사들은 생산경영형으로 전환되었으며, 시장경쟁 속에서 출판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갔다. 1989년 천안문사태를 겪으면서 검열과 관리 강화를 강조하는 문건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1990년 신문잡지출판에 관한 임시규정이 만들어졌고,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2차 개혁개방, 장쩌민의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시장경제 메커니즘 강화를 통한 경제개혁의 추동 아래 출판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면서 문건들은 산업화에 따른 시장관리에 관한 것들이 반포되고 시행되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전후 출판에 관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해외 합작과 외국출판기업의 관리, 출판기구의 대형화 그룹화가 추진되었다. 문건은 당정의 출판사업과 출판산업에 관한 이념, 방침과 전략을 설파하고 시행하는 정책의 장이자 근거가 되었으며, 본 논문은 이런 문건의 내용과 흐름을 통해 사회주의 중국의 출

관문화정책의 역사를 읽어 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 신광웨이 지음, 인트랜스번역원 옮김, 《중국출판=Publishing in China》, 서울: 북폴리오, 2012.
- 신광웨이(辛广伟) 지음, 양원석 옮김, 《시장 논리로 보는 중국출판》(《Publishing in China-An Essential Guide》), 서울: 북스힐, 2006.
- 김영옥, 이봉우, 《중국 신문의 현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박용수, 《중국의 언론과 사회변동》, 서울: 나남, 2000.
- 이봉우, 《시장경제 도입 이후 중국 신문의 변화와 특성》, 서울: 한국학술정부(주), 2004.
- 임유경,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 신문경영의 변화〉, 《중국학연구》 제34집, 2005년 12월.
- 이병국, 〈언론은 당정부 통치기능의 일부-중국의 언론매체와 언론정책〉, 《신문과 방송》, 1992년 1기.
- 宋原放主编, 《中国出版史料现代部分》第三卷上册/下册, 济南: 山东教育出版社, 2000년.
- 祁述裕 등 주편, 《中国文化政策研究报告》,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1.
- 钱承军, 《建国前中国共产党报刊研究》, 北京: 中国文联出版社, 2009.
- 丁柏铨, 《中国当代理论新闻学》,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2002.
- 陆定一, 《陆定一文集》, 北京: 人民出版社, 1992.
- 曹鹤, 《中国报业集团发展研究》, 北京: 新华出版社, 1999.
- 朗劲松, 《中国新闻政策体系研究》, 北京: 新华出版社, 2003.
- 倪延年, 《中国报刊法制发展史》, 南京: 南京师范出版社, 2006.
- 尹章池, 《中国出版体制改革研究》, 武汉: 湖北人民出版社, 2006.
- 陈矩弘, 《文化大革命时期中国出版研究》, 武汉大学학위논문, 2007.
- 宋应离, 《中国当代出版史料》, 郑州: 大象出版社, 1999.
- 廖建军, 《中国出版产业竞争力评价问题研究》, 长沙: 湖南师范大学出版社, 2006.
- 陈昕, 《中国出版产业论稿》,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2006.
- 蒋雪湘, 《中国图书出版产业组织研究》, 长沙: 湖南大学出版社, 2010.
- 王晨, 《中国出版业的产业竞争与政府规制》, 中国书籍出版社, 2009.
- 张骏德, 〈中国三次新闻改革之回顾〉, 《新闻天地》 2002년 4기.
- 沈晓瑾, 〈“双百”方针: 贯穿1956年新闻改革的历史线索〉, 《新闻知识》 2007년 3기.

〈中文提要〉

论文叙述了中国社会主义时期出版文化政策‘文件’生产及其历史意义。文章先‘文件’生产时期分为‘毛’时代和‘后毛’时代，而注目了这两个时期产生了哪些出版文化政策‘文件’而叙述了其历史意义。1949年以后到1956年是社会主义出版事业的建立时期，他们发表了出版文化政策‘文件’而接受和整理了国民党统治时期的出版机构和单位以及出版人士，并进行了出版事业上的统一性、集中性、全国性、指导性，构建了党政指导体制的一元化，也形成了出版单位体制的专业化和分业化，从此大量生产和出版了政治性书籍。经过1956年双百方针和1957年的反右派运动出版事业逐渐退缩了。出版界也不可避免整风运动，出版事业由党政划一不二，一切出版物作为政治手段，出版人大量卷入在政治斗争里。已出版的作品书籍被划定为反党反社会主义毒草，强化了对出版社的审查与管理。而1966年文革开始出版事业更为接受严格的制御。文革时期出版事业都由林彪和江青所操弄，与此同时全面否定建国以后的出版事业，只出版出来了毛泽东著作。1971年周恩来总理关心之下开了全国出版工作座谈会，出版界获得了一次解放感，但是其出版的书籍大部分是有关大革命的，其内容和形式单调和不充实。文革结束后，中国进入改革开放时期，出版界和出版事业逐渐开始恢复而进行了体制上的改革，强调了出版物的市场性和商品性，加强了出版产业化概念。而生产和颁布了与此有关的‘文件’。出版社转换了生产经营型，在市场竞争中保住了出版的自律权力。但‘这些自由环境遭遇到1989年天安门事件再次进入退缩状态，党政颁布了严格管理和统制出版事业的‘文件’。1990年正式出现了<报刊出版暂行规定>，1992年邓小平的南巡讲话和第二次改革开放，并江泽民强化了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而加强了出版产业发展，而颁布和施行了产业化有关的市场管理‘文件’。2001年中国加入WTO前后，生产与颁布了出版条例、海外合作、外国出版企业管理，推动了出版机构的大型化。

论文考察了1949年以来社会主义中国到2001年WTO加入前后中国出版文化政策‘文件’的历史流变及其意义。‘文件’在社会主义中国作为施行党政出版事业和出版产业方针和战略的阵地和根据。论文通过这些‘文件’的历史演变认识了社会主义中国出版文化政策的历史意义。

關鍵詞: 社会主义中国, 出版历史, 党政出版‘政策’文件’, 出版事业, 出版产业, 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

주제어: 사회주의 중국, 출판역사, 당정출판‘정책’문건, 출판사업, 출판산업, 중국특색사회

주의시장경제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